



구례군, 행복지수 전남 1위

삶의 만족도·건강·환경·교육·관계·안전지표 압도적으로 높아

지난달 25일 통계청이 개최한 '제6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대한민국 지자체별 행복지수를 조사한 '대한민국 행복지도'를 공개했다.

전라남도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7위를 차지했다. 전남 구례군은 삶의 만족도 등 8개 지표 중 6개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기초지자체 중 전국 10위, 전남 1위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행복지도는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 삶의 만족도 8개 지표를 활용해 도출한 국민행복지수를 토대로 만들었다.

구례군은 건강, 안전, 환경, 관계 및 사회 참여, 여가, 삶의 만족도 6개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와 교육지표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고려대 행정학과 구교준 교수와 연구팀은 22개 시군구의 행복지수를 측정해 상위 20%에 해당하는 A등급부터 하위 20%에

해당하는 E등급까지 나눴다. 전남에서는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이 A등급을 차지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 중로구가 행복지수 1위, 대구 중구가 2위, 서울 중구가 3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과천시, 서울 강남구, 대전 유성구, 서울 서초구, 영등포구, 광주 동구, 전남 구례군 순이다.

10위권에는 수도권 6개 지역이 포함되었으며 광주·전남은 2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시 단위에서는 과천시, 군 단위에서는 구례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구례군은 우리나라 최고의 자연환경을 비결로 꼽았다. 제1호 대한민국 국립공원 지리산이 도시를 품고 섬진강이 흐른다. 피톤치드와 음이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구례군은 '자연으로 가는 길'을 브랜드슬로건으로 정하고 자연 속에서 군민행복 추구를 모토로 내걸고 있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구례를 '삼대삼미의 고장'으로 지칭하며 가장 살만한 곳으로 손꼽았다. 삼대는 지리산·섬진강·구례들관을, 삼미는 수려한 경관·넘치는 소출·넉넉한 인심을 말한다.

구례군은 전국에서 장수지표가 2번째로 높으며, 광주·전남에서 암 발병률이 가장 낮은 곳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 최초 친환경 유기식품 클러스터인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입주하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업 도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군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족한 경제·교육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 조성, 민·관·학 교육거버넌스인 '구례교육공동체'를 통한 구례형 교육 만들기 등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나주시, 사회적경제 '창업 인큐베이팅'사업 참여자 모집

오는 29일까지 3팀 선발

나주시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창업 인큐베이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창업 인큐베이팅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설립)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팀)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나주시 관내 주소를 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희망자 3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업설명회는 22일 오후 2시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접수 방법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마감 기한까지 나주시공

익활동지원센터 우편·방문(나주시 배מת3길 19-3, 4층) 또는 이메일(najugongik@hanmail.net)로 하면 된다.

단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았거나 타 사업 지원(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등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담양군, 여름철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농촌체험휴양마을·농어촌민박·관광농원 등 대상

담양군은 여름철 안전사고에 대비해 관내 농촌관광시설의 안전점검에 나섰다. 13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이수 여부와 정기 점검 실시 여부, 물놀이 시설 점검 및 비상시 대피경로 표시 등 안전관리 체계 ▲소방시설의 사용 및

점검,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 등 화재 안전관리 ▲식재료 및 조리실 위생관리, 개인 위생관리 ▲건물 가스전기, 난방시설, 체험 관련 안전장비 정기 점검 여부 등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여

부, 손 소독제 비치, 방역 소독 등 대응상황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7월 말까지 진행하며, 농어촌민박 234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11개소, 관광농원 6개소 등 총 251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및 운영현황 점검은 확산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청소년문화의집, 비대면·비접촉 체험활동

'슬기로운 집콕 생활' 반려식물 꾸러미 제공



화순군 청소년문화의집은 8일부터 3일간 비대면·비접촉 체험활동 '슬기로운 청소년 집콕 생활! 반려식물 키우기'를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청소년들이 반려식물을 키우며 즐길 수 있는 원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슬기로운 청소년 집콕생활! 반려식물 키우기'를 기획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사용설명서, 원형 유리볼, 만지 먹을 식물 킬란드리아 등 13종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지역 청소년 100명에게 제공했다.

반려식물 꾸러미는 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3일에 걸쳐 배부했다.

화순=박진철 기자

곡성군, 제2회 대한민국 의회 행정 박람회에서 '인기몰이'



곡성군은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에서 행정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전했다. 박람회는 지자체의 행정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행정기관 간 교류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

을 도모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2회를 맞은 올해는 곡성군을 포함해 전국의 지자체 등에서 250여 개의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곡성군은 행사 전 일정 동안 참여해 방문객들에게 지역을 알렸다. 민선 7기의 핵심시책인 숲 창고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며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었다.

주요 관광지 안내와 친환경 먹거리도 인기를 끌었다. 곡성군의 특산물인 토란을 가공한 토란만주, 토란집 누룽지 시식회에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곡성=김광휘 기자

장성군 "귀농·귀촌 홍보도 비대면으로"

장성군이 7월부터 귀농·귀촌 안내 책자 우편 배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장성군의 최신 귀농·귀촌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특히 도시민들의 관심 사항을 반영한 실속 있는 관련 정보가 가득하다.

서비스 신청은 장성군 귀농·귀촌 홈페이지(http://refarm.jangseong.go.kr/)를 통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귀농이야기 항목을 열면 해당 카테고리를 찾을 수 있다.

향후 장성군은 전국 곳곳에 배부처를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안내 책자를 배포해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평범한 속일 밤상 한속 남다른 여행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러트가요센터/월출산 기찬랜드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